전라매일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012면 지역

군산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총력

내년 2월까지 특별대책 추진

거점소독초소 상시 운영

가축질병 전담관 등 구성

군산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기와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유럽 야생조류의 AI 발생이 40배 증가(8월까지 1237건, 전년 동기 31건)하고 중국 등 아시아에서도 3배 증가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졌으며 최근 정읍과 논산 등에서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시는 금강하구둑과 만경강 등 주요 철새도래지가 속해 있어 언제라도 철새를 통한 질병 발생이 가능한 만큼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해 질병 발생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병원성 AI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차량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거점소독초소 1개소를 24시간 상시 운영 중이다. 또한 야생조류의 서식지인 철새도래지에 방역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수가 종료된 시점부터 드론 및 살수차 등을 추가 동원, 차량소독이 불가한 지역까지 확대 소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가축질병 전담관으로 구성해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홍보 및 소독상태를 점검해 고병원성 AI가 농장 내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군산은 지난 2017년 6월을 마지막으로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번 동절기에도 축산농장의 전염병 근절을 위해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환경개선의 날 운영, 읍면동 및 공동방제단의 소독장비를 동원 축산농장에 철저한 소독을 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청정도시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며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축사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농장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및 소독 등 농가 단위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전주매일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007면 지역

고병원성 AI 차단방어 '총력'

군산시, 철새 도래 상황 등 고려…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운영

군산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기와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유럽 야생조류의 AI 발생이 40배 증가(8월까지 1237건, 전년 동기 31건)하고 중국 등 아시아에서도 3배 증가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졌다.

최근 정읍과 논산 등에서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시는 금강하구둑과 만경강 등 주요 철새도래지가 속해 있어 언제라도 철새를 통한 질병 발생이 가능한 만큼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해 질병 발생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병원성 AI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차량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거점소독초소 1개소를 24시간 상시 운영 중이다.

또한 야생조류의 서식지인 철새도래지에 방역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수가 종료된 시점부터 드론 및 살수차 등을 추가 동원, 차량소독이 불가한 지역까지 확대 소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가축질병 전담관으로 구성해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홍보 및 소독상태를 점검해 고병원성 AI가 농장 내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군산은 지난 2017년 6월을 마지막으로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번 동절기에도 축산농장의 전염병근절을 위해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환경개선의 날 운영, 읍면동 및 공동방제단의 소독장비를 동원 축산농장에 철저한 소독을 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청정도시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며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축사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농장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및 소독 등 농가 단위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즉시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북타임스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006면 지역

군산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운영

군산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기와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유럽 야생조류의 AI 발생이 40배 증가(8월까지 1237건, 전년 동기 31건)하고 중국 등 아시아에서도 3배 증가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졌으며 최근 정읍과 논산 등에서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시는 금강하구둑과 만경강 등 주요 철새도래지가 속해 있어 언제라도 철새를 통한 질병 발생이 가능한 만큼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해 질병 발생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병원성 AI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차량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거점소독초소 1개소를 24시간 상시 운영 중이다. 또한 야생조류의 서식지인 철새도래지에 방역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수가 종료된 시점부터 드론 및 살수차 등을 추가 동원, 차량소독이 불가한 지역까지 확대 소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가축질병 전담관으로 구성해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홍보 및 소독상태를 점검해 고병원성 AI가 농장 내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군산은 지난 2017년 6월을 마지막으로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번 동절기에도 축산농장의 전염병근절을 위해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환경개선의 날 운영, 읍면동 및 공동방제단의 소독장비를 동원 축산농장에 철저한 소독을 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청정도시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민일보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008면 지역

군산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총력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반 운영
거점소독초소 1개소 24시간 설치

군산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기와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반을 운영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가운데 최근 정읍과 논산 등에서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시는 금강하구둑과 만경강 등 주요 철새도래지가 속해 있어 언제라도 철새를 통한 질병 발생이 가능한 만큼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해 질병 발생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병원성 AI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차량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거점소독초소 1개소를 24시간 상시 운영 중이다.

또한 야생조류의 서식지인 철새도래지에 방역차량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수가 종료된 시점부터 드론 및 살수차 등을 추가 동원해 차량 소독이 불가한 지역까지 확대 소독할 방침이다.

아울러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가축질병 전담관으로 구성해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홍보 및 소독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 "군산은 지난 2017년 6월을 마지막으로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다"며 "청정도시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새만금일보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007면 지역

군산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운영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력

군산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기와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운영한다.

최근 유럽 야생조류의 AI 발생이 40배 증가(8월까지 1,237건, 지난해 동기 31건)하고 중국 등 아시아에서도 3배 증가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졌으며 최근 정읍과 논산 등에서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금강하구둑과 만경강 등 주요 철새도래지가 속해 있어 언제라도 철새를 통한 질병 발생이 가능한 만큼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해 질병 발생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병원성 AI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차량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거점소독초소 1개소를 24시간 상시 운영 중이다.

또한 야생조류의 서식지인 철새도래지에 방역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수가 종료된 시점부터 드론 및 살수차 등을 추가 동원, 차량소독이 불가한 지역까지 확대 소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가축질병 전담관으로 구성해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홍보 및 소독상태를 점검해 고병원성 AI가 농장내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청정도시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며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축사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농장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및 소독 등 농가 단위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즉시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순정일 기자

全羅日報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008면 지역

군산시, AI 차단방역 강화

거점소독초소 24시간 상시 가동
드론 활용해 철새도래지 소독 등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운영

군산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기와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유럽 야생조류의 AI 발생이 40배 증가(8월까지 1237건, 전년 동기 31건)하고 중국 등 아시아에서도 3배 증가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졌으며, 최근 정읍과 논산 등에서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됐다.

시는 금강하구둑과 만경강 등 주요 철새도래지가 속해 있어 언제라도 철새를 통한 질병 발생이 가능한 만큼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해 질병 발생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에 고병원성 AI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차량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거점소독초소 1개소를 24시간 상시 운영 중이다. 또한, 야생조류의 서식지인 철새도래지에 방역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수가 종료된 시점부터 드론 및 살수차 등을 추가 동원, 차량소독이 불가한 지역까지 확대 소독할 계획이다.

/군산=강경창기자 · kang@